



www.eulji.ac.kr

을지대학보

THE EULJI UNIVERSITY TIMES

제300호

2024년 9월 2일 월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오창석
편집장 신희진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300호 CONTENTS

- 01 **면보도** 을지대학교 자매대학 日국제의료복지대학 초청해 하계연수 프로그램 성료
- 02 **학보 제300호 발행 특집**
- 03 **학내소식**
- 04 **대학원·의료원·동문 소식**
- 05 **인터뷰** 첨단의료로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이정표
- 06 **특집** EULJI 비교과 프로그램
- 07 **사회** 노점 허가제에 대한 재고와 합리적인 관리방안
- 08 **문화** 위험한 유혹, 약물 오남용의 참혹한 현실
- 09 **지식** 자외선
- 10 **학생** 20대 불법 도박
- 11 **기자수첩**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보편 지원, 혹은 선별지원
- 12 **제42회 을지문학상 공모전**



을지대학교, 자매대학 日국제의료복지대학 초청해 하계연수 프로그램 성료

을지대학교가 올해도 자매 대학인 日국제의료복지대학 (IUHW) 단기연수단을 초청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계 연수를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박항식 을지대학교 부총장, 장정운 국제교류원장을 비롯해 을지대 관계자 및 박진상, 카오리 사사키 日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와 학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을지대학교를 찾은 연수단의 학생 40명은 간호학과, 약학과, 재활의학과 등 7개 학과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을지대는 학생들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특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형 및 맞춤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단은 열흘간 ▲간호, 물리치료, 의료경영, 임상병리 등의 맞춤형 특강과 실습 ▲성남캠퍼스 범석의학박물관 참관 ▲의정 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견학 ▲문화 체험(문화유적지 박물관 방문, 스포츠 관람 등) 등 다양한 대내외 일정을 소화했다.

박항식 을지대학교 부총장은 수료식에서 “日국제의료복지대학 학생들이 이번 방문에서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훌륭한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日국제의료복지대학 하계연수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항식 부총장

학사일정

- 9월 2일 (월)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 9월 2일 (월) ~ 9월 6일 (금)
수강 정정 기간
- 10월 10일 (목) ~ 10월 11일 (금)
을지축전
- 10월 22일 (화)
개교기념일
- 12월 9일 (월) ~ 12월 13일 (금)
기말고사
- 12월 11일 (수) ~ 12월 13일 (금)
계절학기 신청기간
- 12월 16일 (월) ~ 12월 20일 (금)
보강기간
- 12월 25일 (수) ~ 12월 27일 (금)
성적 열람 및 정정



을지대학교 총장
홍성희

을지대학교 학보사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을지대학교 학보사는 학내 소식을 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매체로서 60년 가까이 학생들의 눈과 귀, 입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처음 마주하는 사회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이바지했습니다. 학보사에서 순수한 열정을 쏟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학생 기자는 자신의 펜으로 대학 교육 현장을 바라본 시선을 담아냈고 을지 학우, 동문의 모범 사례나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까지 하며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매체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요즘은 언론과 매체의 소비 방식이 신문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추세지만, 학보사는 기록의 매체인 신문 본연의 기능으로 을지인의 소식을

꼼꼼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학보사와 대학생 기자의 기능과 권한은 앞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 기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기사에 자부심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학의 행보와 교육에 대해 힘 있는 눈빛을 가진 학생 기자 여러분의 시선과 목소리를 담아주시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교육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을지대학교의 학보 3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학우 여러분과 대학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학보사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총동문회장
신춘식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은 항상 우리 동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오늘, 을지대학교 학보사가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300호를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한 을지대학교 학보사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지대학교 학보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학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동문들의 활동과 행사,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며, 을지대학교의 학문적 역량을 넓혀 왔습니다. 지금 학습 중인 재학생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을지대

학교 보건의료특성화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인 인공지능, 정밀의료, 유전의학 및 나노의학 등을 융합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여를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을지대학교보는 300호 발행을 기념하며 더욱 강화된 책임감으로 학내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총동문회에서 학보사의 성장과 발전을 항상

응원하며,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을지대학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개인의 능력 보다는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자랑스러운 을지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학문과 지식의 나눔이 깊이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학보 발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학보사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지대학교 200호 주간교수
성명희

안녕하세요? 서울보건대학교와 을지대학교의 통합 원년인 2007년에 발행된 을지대학보 주간교수 성명희입니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을지대와 역사를 함께 해온 을지학보의 3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그간 을지대학보의 발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 흘리는 기자 여러분의 헌신으로 을지대학보는 교양을 넓혀주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교육적 기

능, 대학 구성원들의 애교심·소속감·유대감 및 건전한 교풍이 형성되도록 하는 결속력 기능, 새로운 대학 언론 문화를 창조하려는 창조적 기능, 대학을 지역사회에 알리려 상호 협력관계 수립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홍보적 기능을 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면서 대학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을지대학보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을지대학보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을지대학보 3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정운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을지대학교 학보사의 300호 학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보사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보를 통해 대학의 학문적 지식과 정보를 교내외에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과 대학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 후세에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

내 유일 언론기관입니다. 을지대학교의 학우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00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과를 넘어, 많은 기자분의 목소리와 의견이 담긴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학보가 전해온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은 우리 학문 공동체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을지대학교 학보사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보람찬 기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300호의 발간이 앞으로의 많은 호들에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보사 14기
이용주

을지대학교 학보사 3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보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300호 발행은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학보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보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300호 발행은 이러한 학보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번 300호에서는 특히, 학보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보사가 계속해서 독

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학 생활에 더욱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학보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학보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300호 발행을 축하드리고, 모든 학보사 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지대학교 교무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습연구동아리' 우수 동아리 시상식 개최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난 8월 2일(금) 2024학년도 1학기 '학습연구동아리' 우수 동아리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습연구동아리'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공 지식을 심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학습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심사 결과 총 25팀(152명) 중 'Light UP(의료공학과 나홍준 외 8명)', 'EU 최강 FOOD(바이오공학부 정예원 외 4명)'가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다.

선정된 각 동아리는 전공 학습과 더불어 활동 일지 작성, 화칙 준수 등 기본적인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습연구동아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백진경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재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스스로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

을지대학교, 고교생 대상 '자기주도 프로젝트 공유학교' 성료



을지대학교가 지난 7월 29~31일 운영한 '대학연계 학생 맞춤형 자기주도 프로젝트 공유학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경기도 광주·하남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을 활용해 평소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고교생의 적성을 고려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을지대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바이오공학부 전공을 편성해 이론 수업과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안전교육을 제공했다. 강좌별로 학생 10여 명씩 참여해 맞춤형 교육과 개별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철 을지대 입학관리처장은 "보건의료특성화대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실습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을지대에서 체험한 수업이 진로를 탐색하는 고교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K-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7월 5일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에서, 성남시 5060신중년 프로그램 'K-뷰티 전문가 양성 및 나눔과정'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신규육 책임교수(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뷰티아트전공), 권나경 을지대 학점은행제 책임교수, 1기 수료생 20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수료증 수여·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19일 입학식과 함께 열린 이번 과정은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성남시가 위탁하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마련한 뷰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약 12주 동안 ▲피부관리 ▲아로마테라피 ▲두피·모발관리 ▲메이크업 ▲네일관리 ▲지역 복지기관 봉사활동 및 현장학습 등 K-뷰티 주요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신규육 책임교수는 "K-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수강생의 인생 2막 준비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K-뷰티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K-뷰티 전문가 양성 및 나눔과정 2기 선발을 최근 마치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의예과

의예과 2학년 김혜원 학생, SCIE 저널에 공동1저자로 논문 등재



을지대학교 의예과 2학년 김혜원 학생이 SCIE 저널인 'Experimental Neurobiology'에 공동1저자로 '혁신적인 3D 모션 캡처 및 딥러닝 기술을 통한 비만 조기 징후 감지'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혜원 학생은 을지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간 의사과학자 양성 협력과정을 통해 진행된 2023 동계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IBS 기초과학

연구원 생명과학분야의 인지 및 사회적 연구단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연구팀은 고지방식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지방식과 표준식을 각각 다른 쥐 그룹에게 제공하고,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또한, 고지방식을 섭취한 쥐 그룹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3D로 기록하여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추적,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LSTM(Long short-term memory) 딥러닝 기술로 쥐의 움직임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분석하여 행동만으로 어떤 형태의 음식을 섭취한 쥐인지 구별해내는 등 비만과 관련된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기초의학과장 이명신 교수는 "의예과 학생이 재학중에 SCIE 논문의 주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 바이오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2024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발표 및 재학생 포스터 발표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을지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식품산업외식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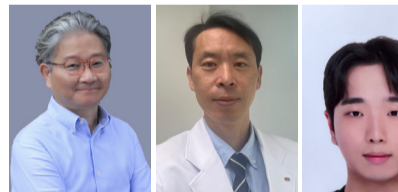
지난 7월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2,500명 이상 참여하는 규모 있는 학회로, 이 학회에서 차성수 교수는 "Customers' Intention to Use Robot Serving Restaurants in Korea: Relationship with Coolness and MCI Factors"라는 주제로 레스토랑의 로봇 서빙 서비스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오영지 교수는 "Distinct metabolic profiles of 35 edible and essential oils according to origin, extraction methods, and phylogenetic level"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학회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또한 재학생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은 한 학기 동안 논문세미나수업으로 진행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4건의 포스터를 발표하여 국내최대규모의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을지대학교 학생들의 연구역량확장과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래융합대학 스마트의료정보학부 의료IT학과

의료IT학과 최준우 학생, SCIE논문 공동저자 게재



의료IT학과 최준우 학생이 SCIE 저널인 "A study on Improving Sleep Apnea Diagnoses Using"라는 제목으로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와 을지대학교 의료IT학과 강민수 교수와 함께 공저자로 게재되었다.

최명수 교수팀은 이 연구에서 기존 STOP-BANG이라는 간단한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진단법을 소개했다.

STOP-BANG은 높은 민감도를 보이나, 체크리스트 항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특이도가 낮은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TOP-BANG을 활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KNN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스스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미세한 차이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아닌 사람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최명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보다 편리하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건강검진 등 대규모 환자 조기 검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을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 대학원생,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서 1등상 수상



을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 김규리 대학원생은 지난 7월 3일부터 5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에서 'Senior Customers' Driving Factors and Perceived Benefits from Robotic Service Restaurants in Korea(한국 시니어 소비자의 로봇 서비스 레스토랑 이용 동기와 지각된 가치)라는 주제의 발표로 석사 발표 1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규리 대학원생은 특히 '로봇 서비스 레스토랑의 실용화 가능성'과 '시니어(50세 이상 기준) 고객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서 시니어 고객들이 초기에는 로봇 서비스 레스토랑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만, 실제 경험 후에는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로봇의 정확성과 일관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성수 지도교수(을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는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적 의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다"라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로봇 서비스 레스토랑에 관한 연구는 향후 외식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급성기뇌졸중·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급성기뇌졸중과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8월 6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 점수 99.09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 점수는 전체평균인 88.13점, 종합병원 평균인 85.57점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치다.

특히, 12개 평가지표 중 ▲조기 재활 평가율 ▲조기 재활 실시율 ▲퇴원시 기능평가(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4.5시간 이내) 등 4개 지표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또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도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취료가 청구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으로 전체평균 89.7점과 종합병원 평균 91.5점을 크게 상회했다.

이 밖에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등급 획득에 이어 이번 평가(2023년 1~12월) 발표에서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주요 지표에서 1~2등급을 받았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이승훈 원장은 "2021년 개원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치료 잘하는 경기 북부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치위생학과

바른마음치과,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에 발전장학금 후원

지난 6월 12일,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동문 김수정(17학번), 이다은(19학번)이 근무 중인 바른마음치과의원 나상준 대표원장이 본 학과에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만원을 치위생학과 발전장학금으로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동문인 17학번 김수정, 19학번 이다은, 20학번 이해원의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나상준 원장은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출신 인재들이 바른마음치과의원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감사의 표시로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기부와 더불어 바른마음치과의원과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는 MOU체결을 통해 유대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학과장 임희정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문들의 후배 사랑과 학교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치위생학과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발전기금 QR코드



장학기금 QR코드



성남캠퍼스 스마트의료정보학부
김지수 학생회장

첨단의료로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이정표

이번 학년도 신설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스마트의료정보학부는 의료공학, 빅데이터인공지능, 의료경영의 세 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제 전환에 따라 세 개의 전공이 하나가 된 지 한 학기가 지났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체감되었는지 생생하게 들어보고자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학생회장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은서 학생기자 enhfarm@naver.com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제3대 학생회장 22학번 김지수입니다.

Q. 스마트의료정보학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의료정보학부는 의료공학전공,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의료경영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공학전공에서는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 운용 관리하는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에서는 첨단기술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경영전공에서는 의료경영,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학생대표라는 역할이 학부제 이전의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학부 학생회장은 세 학과의 학생회장들 중 대표자를 뽑은 것인데, 각 학과 학생회장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회를 통솔하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학부 학생회를 통솔하고 부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Q. 그렇다면 학생대표로 계시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행사 하나하나를 끝내는 순간들이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크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뿌듯함의 크기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해냈다는 안도감과 행사 진행할 때의 학생들의 표정, 그리고 가끔 에브리타임 게시물로 올라오는 칭찬의 글이 힘이 됩니다.

Q. 학부제 이후 초대 학생대표이십니다. 한 학기 동안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선배배간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제도가 3학년 1학기까지도 자신의 주전공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보니, 학과(선배)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후배'라는 느낌이 덜 했고, 반대로 전공(후배)의 입장에서도 교육과정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팁을 물어보거나 친해지고자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체육대회를 통해 서먹함은 조금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타 학과에 비하면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부제 전환에 대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들께서는 각 전공을 접해볼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전공을 경험하고 바꿈으로써 자신을 알아가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학부제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의견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신입생의 경우에는 원서를 넣을 때 변화된 제도에 대해 이미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부제도 변화로 인한 학과 정체성과 선후배간 관계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많은 듯했습니다.

Q. 세 전공이 합쳐져 학부를 이루다 보니 각 전공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가요?

세 전공의 학생회장은 각 학과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운영은 각 학과의 운영방식을 따라갔는데, 학과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행사 기획 시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장단점 등을 이야기하고 더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며 조율하였습니다.

Q. 특색이 있는 세 개의 전공이 합쳐져 있다 보니 시너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전공이 연관성이 조금씩 있다 보니,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인공지능 전공을 위해 의료경영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이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스마트의료정보학부 학생대표로 계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까 교수님들도 학부제의 안정화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학부제가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바뀌는 단계이기도 하고 내년엔 학부제가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완벽해지고 싶다고보다는 내년의 학생회장들이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학부제 운영이 안정화된다면 학생들 또한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학부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개선할 점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스마트의료정보학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부제가 도입되는 첫해이고 내년에도 조금 변경되지만, 끝까지 잘 챙겨 줄 테니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할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배들에게 더 다가가는 용기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다른 선배들은 잘 몰라도 세 학과 학생회장 얼굴은 아니까 우리의 테라도 도움 요청이나 밥이라도 사달라고 와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EULJI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대학의 인재상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정규 교과목 외에 별도로 개설되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 2 학년

3, 4 학년

공통

학습역량 강화

- Learning Start
- 학습동행
- 넛지(Nudge) Study
- 피어오름(Peer오름)
- 오거서I
- 오거서II
- 국어클리닉
- 영어클리닉
- EU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 EU 예비대학프로그램
- EU 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
- EU 글로벌 창의역량강화 프로그램
- Bridge 프로그램
- EAC
- EU모의토의자가진단프로그램
- 을지 BOOK 페스티벌
- 이유(EU) 있는 도서 북 큐레이션

- H P CTL
- N CTL
- H U M A N CTL
- N P CTL
- H P 교양
- H P 교양
- N P 교양
- U P 교양
- U P 교양
- U P 교양
- A 교양
- U P 교양
- U P 국제
- U P 국제
- U P 국제
- H P 학습
- H P 학습

- 학습연구동아리
- EU-학습멘토링
- 사제동행 시그니처 프로젝트
- EU국시합격-UP학습지원
- 전공학술제
- EU 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 EU 인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 EU창의공작소
- GPS-SPEC 프로그램
- GPS-STORY 프로그램

- N P CTL
- N CTL
- H U M A N CTL
- H 교무
- N 교무
- H P 교양
- H P 교양
- M P 교양
- U P 교양
- U P 교양

<학과 및 개별 교수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 확인 요망

- 하이브리드 인재 양성 프로젝트
- DAO+(다오플러스)프로젝트

- H U M A N CTL
- M P 컨버

진로·심리 상담

- 심리검사
- 집단상담
- 진로 캐리커처
- 대학생활적응 Gatekeeping
- 대학정신건강 실태조사
- 정신건강특강
- 학생생활상담실 알리미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집단상담
- 양성평등상담실 알리미

- H 인권
- H P 인권
- H 인권
- H P 인권
- H 인권
- N P 인권
- N 인권
- N 인권
- N P 인권
- N 인권

- 개인상담
- 상담 서포터즈
- 심리진로프로그램 공모전
- 3개 캠퍼스 상담네트워크
- 진로적응 SWITCH ON
- 인권 서포터즈

- H 인권
- N P 인권
- N P 인권
- H 인권
- H P 인권
- N P 인권



취업·창업 지원

- EU(이유) 있는 진로 멘토링
- EU(이유) 있는 진로캠프
- 전공진로 선호도검사(직업선호도검사)
- EU 진로취업 가이드
- 전공기반 진로교육 활성화

- N 취업
- N 취업
- N P 취업
- N P 취업
- M 취업

- EU 전공진로 멘토링
- EU그룹 가상재용프로세스 경진대회
- EU 잡(JOB)크루 취업동아리
- EU 입사지원서 코칭
- 진로체험 기업탐방
- 셀프브랜드 진단검사up(퍼스널컬러진단검사)
- EU 맞춤형 진로컨설팅
- EU 면접 마스터
- EU(이유) 있는 취업캠프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N P 취업
- N P 취업
- N 취업
- N 취업
- N P 취업
- N 취업
- N 취업
- N 취업
- N 취업
- M P 취업

사회 공헌

- EU 호모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

- A P 교양



전학년 참여 가능

- 사회봉사 기초교육
- 전공봉사 활동지원 프로그램
- EU두레 프로그램(학생봉사단 "빛길", 교직원봉사팀)
- 캠퍼스별 전공봉사(힐링스페이스)
- 생애주기별(위탁기관연계) 전공봉사
-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EU-CheerUp)

- A P 봉사단
- A P P 봉사단
- A P P 봉사단
- A P P 봉사단
- A P P 봉사단
- A P 학생지원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란?

개요

우리 대학에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운영시간 등에 따라서 마일리지 부여 프로그램을 선정 및 마일리지 점수를 설정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로 장학금(생활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FB 인재인증 제도

비교과 FB 인재인증 제도란?

개요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5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인성-전문성-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HUMAN 인재 양성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대학 핵심역량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인증하는 제도

▶ HUMAN 대학 핵심역량 기반의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중, 선정된 '인증 프로그램' 참여(이수)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해당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혜택으로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장학금'(등록금성)이 수여됩니다.

본 가이드는 적합한 시기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 학년을 제안하는 가이드입니다.

참여대상 학년에 대한 제한 또는 조건이 아님을 유의하시고, HUMAN 역량 개발 계획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여부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주관부서의 추후 공지를 확인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수상자에 한하여 인증 부여함

그 많던 노점들은 어디로 갔을까

노점 허가제에 대한 재고와 합리적인 관리 방안

강주연 학생기자 0519jenny@naver.com



좋은 날씨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한창이다. 축제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서 축제를 한층 더 흥겹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길가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기념품들을 파는 노점들이다. '노점'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한다. 붕어빵, 분식과 같은 먹거리를 팔며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포장마차들도 노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즘 축제나 변화가, 평소에 지나다니는 길거리를 살펴보면 과거만큼 노점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역세권 대신 '봉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노점 현황을 보면 그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 많던 노점들은 왜 사라지고 있을까?

활기찬 노점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들과 조세 문제

노점은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거리의 상징이지만 그 실체는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노점이 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노점상들을 불편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대표적으로 노점이 보행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탓에 도시 외관을 해치고 길이 좁아져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비판이 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한 것이다. 노점은 도로의 상당 부분을 좌판과 차량으로 차지하여 교통에 방해로 주기도 한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노점의 경우 애초에 불법이 많고 이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음식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위생적으로 식중독 등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한편 세법상 노점은 면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전기세, 운영비,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기에 합법적인 임차료를 성실하게 내는 상인들은 노점상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어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노점 단속의 시작과 노점 허가제의 도입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일반 상인들이 신고하는 민원이 늘어나며 각 지자체에서 노점을 정비하고 철거시켰고 노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점상의 생존권 또한 중요한 가치인 만큼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강요하긴 힘든 상황이기에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노점 피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점을 합당한 기준과 이유에 따라 관리,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9년부터 '노점 허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노점 허가제는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허가증을 얻은 노점은 소정의 점용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이 서울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하면 허가를 내주어 불법 노점상들의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허가를 얻지 못해 불법

도로점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계도 후 철거에 나서고, 지자체로부터 단속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노점을 정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면서도, 불법으로 운영되던 노점을 양성화하여 모든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목적이다.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 해결되지 못한 노점상의 고충

그러나 일부 노점 상인들은 노점 허가제가 노점을 관리와 정비 대상으로 볼 뿐 당사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노점상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점 허가제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아직 멀어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노점 5,400여 곳 중 허가를 받은 곳은 3분의 1 수준인 1,900여 곳에 그쳤다. 대다수 노점상이 여전히 제도 밖에 위치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재산상한선과 거주제한 같은 허가 기준 문턱이 노점상들에게 턱없이 높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1인 1노점 운영 원칙, 양도나 매매·위탁 운영 금지 조항 등을 어길 경우 정비 대상이 되고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자치구마다 노점 정책이나 세부 규정이 달라 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은 합법, 저쪽은 불법이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가제는 법적인 근거 규정 없이 방향만 제시하는 일종의 지침, 권고 성격일 뿐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자치구 자율로 기준과 운영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서울시 자치구 4곳은 허가제를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더라도 무조건 감축을 원칙으로 기존 노점만 유지하며 신규 사업자를 받지 않고 노점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상당수이다. 노점상들은 허가제가 아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당당하게 영업하고 싶다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점의 역할을 인정하는 개선된 노점 양성화 정책의 필요성

노점이 주는 피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쉽게 먹거리와 상품들을 살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축제와 변화, 관광지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노점의 긍정적인 역할도 부정할 수 없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노점을 통한 경제 활동 기회도 무작정 박탈시킬 수 없다. 따라서 노점상을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제각각인 현행 노점 정책을 개선하여 노점상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노점 문제와 얽혀있는 점포 상인들, 지역 주민들, 노점 대표들,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당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을 다시 예방?

위험한 유혹, 약물 오남용의 참혹한 현실

황하윤 학생기자 hyunn0429@naver.com



약은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로, 언젠가부터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약물 오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약물 남용으로 인한 중독과 부작용은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약물 오남용 문제에는 어떤 예방 대책들이 있을까?

순조롭지 않은 치료

약물 오남용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약국에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손쉬운 약물 구매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처방된 약을 지시된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효과를 기대하거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자의적으로 복용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약물 중독의 원인이 된다. 더불어 광고나 주변의 권유로 약물을 오용하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는 특히 진통제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많이 오남용된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진통제 처방이나 환자의 약물 사용 이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내릴 때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범죄율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약물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러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수 있음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나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덧붙여 세계적으로 약물 제조소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 약물 시장 활성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중을 위한 추진력인가

최근 국내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다. 제형에 따라, 속방형 제제는 ADHD와 수면발작 치료제로 사용되고, 서방형 제제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된다. '처방량 급증'이라는 단어만 보면 ADHD 환자가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특성상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발하는데 실제로 '공부 잘되는 약'으로 불리며 암암리에 팔려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학업에 한창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달콤한 유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20대 환자는 식약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7만 758명으로 같은 기간 1

만 6천 157명이 증가했다. 물론 '공부 잘되는 약'의 수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시간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한방에서도 천자문을 하룻밤 사이 외우게끔 해준다는 '총명탕'이 유행한 시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뇌 신경전달물질을 강제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신경 자극이 지속되면 뇌 신경세포는 이에 적응해 더 많은 약물을 요구하고, 결국 많은 자극으로 뇌세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나친 흥분작용에 홀려 쾌락적 욕구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무지와 의지박약의 차이

집중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빙자한 편법을 쓰는지 이유를 대자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고자 노력한다. 이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극한의 강박감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본인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편법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력을 매우 저평가 하는 행위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약물에 의한 자극은 강한 중독을 일으키고 인간을 종속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처방받았거나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병원 방문 시 진단받은 처방전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굳이 '불법 약물'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6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절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60개 의료기관에 대해 7월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집중 단속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환자도, 국가기관도 모두 노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메틸페니데이트처럼 오남용되는 약물이 모두 불법 약물인 것은 아니다. 가장 접근성 높은 알코올과 니코틴도 약물로 분류되며 흔히 남용되는 약물들임을 염두에 두고 모든 약물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몸과 정신

약물 오남용에 관한 논의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오남용의 원인 및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다.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독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될 때, 약물 오남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의지를 굳게 다지고 사회적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약물 오남용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층의 오남용 관련 사전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되길 바란다.



눈부시게 내리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자외선

윤재연 학생기자 wkofcy@gmail.com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흐린 날은 흐린 날 대로 우리는 매일 날씨를 신경 쓰며 살고 있다. 한여름, 땀방울 아래를 지나며 탈 것만 같은 피부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흐린 날은 햇볕이 없어 안심하고 선크림을 생략하고 나가본 적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피부색을 보고 궁금해하며, 선크림 뒷면의 +표시가 몇 개나 있는지 세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혹은 때때로 신경 쓰이는 자외선을 파헤쳐 보고 이에 대한 궁금점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자외선도 종류가 나뉜다

자외선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자외선은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이다.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짧으면서 X선 보다는 파장이 큰 범위에 위치한다.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자외선(Ultra Violet, UV)은 UV-A, UV-B, UV-C 세 종류로 나뉜다. 순서대로 파장이 짧으며 에너지는 크다. UV-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으며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5%를 차지한다. UV-B에 비해 에너지량은 적지만 피부가 그을리는 수준으로, 인체의 표피층 아래 진피층에서 빛이 흡수되는데 이때 콜라겐 파괴로 인한 탄력 상실, 주름 등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된다. UV-B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종류의 자외선이다. UV-B의 파장은 인체의 피부 바깥인 진피층에 도달할 수준이다. 표피 세포에 도달했을 때 색소침착, 일광 화상과 피부 손상, 물집, 심하면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자외선이다. UV-C는 가장 짧은 파장으로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아 인체에 해롭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파괴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흔히 자외선 살균기에 살균 목적으로 쓰이며 오존층과 대기에서 완전히 흡수된다.

흐린 날에도 선크림 필수

그렇다면 자외선을 왜,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평소에도 선크림을 바르길 권장하는 이유는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 구조를 변화시켜 돌연변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자외선의 에너지는 원자간 결합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에 원자간 결합보다 낮은 수준의 DNA 수소결합 또한 끊을 수 있다. 염기 서열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돌연변이 세포들은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어두운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방법은 UV-B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SPF와 UV-A를 나타내며 +로 표시하기도 하는 PA를 보면 된다. SPF는 UV-B 차단율을 나타내고 SPF 50의 경우 자외선의 1/50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달하며 차단율은 98%이다. 일상생활에선 15 정도만 되어도 문제가 없다. PA는 색소침착 정도를 이용한 수치로 +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UV-A 차단력이 두 배 늘어난다. UV-B는 창문, 구름 수준에서 걸러지지만 UV-A는 파장이 길어 창문과 구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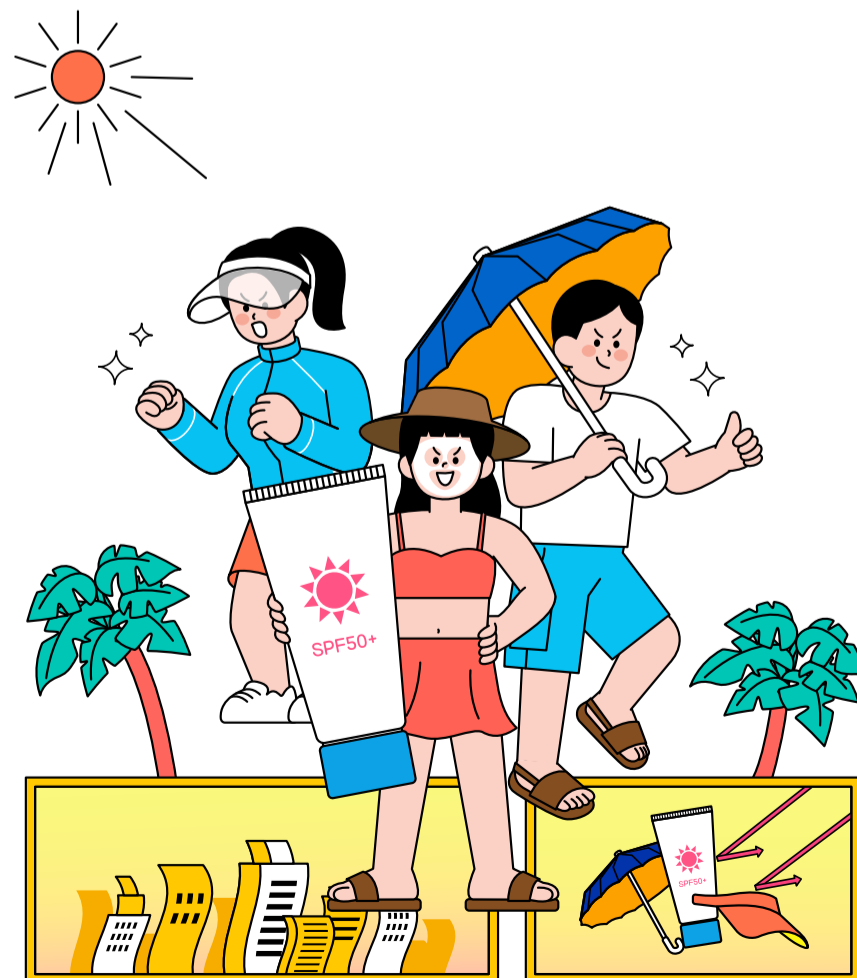
자외선 지수, 알고 대비하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면 날씨와 기온, 미세먼지 정도 외에 자외선 지수 또한 상단에 표시된다. 자외선 지수는 피부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외선에 노출될 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이다. 위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맑은 날씨의 자외선 예측값에 날씨 예보를 통한 구름 보정 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위험(11~)은 햇볕 노출 시 수심 분 이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가장 위험하며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고 외출 시 긴소매와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한다. 매우 높음

(8~10)은 마찬가지로 수심 분 내에 피부 화상의 위험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내의 외출을 삼가며 그늘에 머물며 외출 시 주의 사항은 동일하다. 높음(6~7)은 햇볕 노출 시 1~2시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한낮에는 그늘에, 다른 주의 사항은 위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날씨 특성상 2시간이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기 때문에 두 시간에 한 번씩 바르기를 권장하고 있다. 보통(6~7)은 2~3시간 내 노출 시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길 권장하고 있다. 가장 낮은 지수인 낮음(~2)은 햇볕 노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햇볕에 민감한 경우만 차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지수가 3 이상에 도달하면 자외선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UV-A 월별 복사량은 5~6월, UV-B 월별 복사량은 7~8월에 최대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도움도 되지만 경계해야

지상으로부터 약 13~50km 사이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광선 중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오존층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차 파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늘어나 자외선은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UV-B는 체내 프로타민 D를 활성화해 비타민D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타민D 결핍보다 피부암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타민D는 보조제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피부는 물론 눈 건강에도 위해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자외선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더운 날, 땀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선글라스와 같은 차단 용품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양산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UV 코팅이 된 양산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햇볕을 막아 더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 용품으로 우리의 피부를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뺏겨 빠진 청년들

20대 불법 도박

김태경 학생기자 eunursing@naver.com



최근 뉴스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에서 20대 청년들의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대 도박 중독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이용 혹은 운영하다 검거된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젊은 세대의 미래가 위태롭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 도박, 인터넷 카지노, 불법 포커 사이트 등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지속되는 20대 불법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도박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하필 ‘젊은 세대의 불법 도박’이 화제가 되는 것일까?

가장 취약한 시기, 청춘(靑春)

젊은 청년들에게 불법 도박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청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신경학적으로 중독에 취약하기에 도박 중독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점이 꼽힌다. 오프라인 도박장에 직접 가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빠른 돈벌이’와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는 허위 광고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大)보급화 시대, 20대 청년들의 뛰어난 스마트폰 사용 능력 또한 하나의 요인이다. 세 번째로,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이 온라인과 모바일 도박에 접근이 증가하며, 개인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 도박에 빠진 청년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25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경찰청의 단속 인력 부족, 법적 제재의 미비,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 치료 시설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재활 시설의 부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젊은 도박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

시작은 작은 기쁨이었다

그렇다면 불법 도박이 위험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 불법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도박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강한 중독성이다. 도박 중독은 순간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강한 쾌감과 같은 자극을 주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게 된다. 도박은 알코올이나 일부 약물보다도 중독성이 크고 그 자극이 일시적이기에 그 자극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즉, 도박 중독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이를 통해 도박에 대한 강박적 행동을 유발

하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파괴한다. 도박이 주는 한순간의 도파민에 중독된 청년들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다시 도박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팅 실패로 인한 금전적 손해 혹은 사기 피해 등은 법적 도움을 받기조차 어렵기에 그들은 더욱 고립되기 취약한 상태가 된다. 자연스럽게, 불법 도박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우려된다. 많은 범죄 조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조직과 연관될 경우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수의 중독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이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불법 도박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불법 도박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불법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먼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총규모가 무려 100조에 육박한다. 최근 경찰은 몇몇 대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이트들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사이버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인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와 대학, 직장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도박 중독자들이 사회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문 시설의 설립일 것이다.

남일이나이다

이 기사를 읽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혹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 주변 친구들이 다 하니깐, ” “ 고작 몇만원의 소액이니깐, ” “ 난 운이 좋으니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 등의 생각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 대다수의 도박 중독자들 또한 처음부터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자신의 가족, 친구, 사회적 지위 모든 걸 잃을 것을 예상하고 도박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불법 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예방과 치료,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해 힘쓰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정책, 유지해도 괜찮을까?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보편 지원, 혹은 선별 지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말까지 총 10차례 연장하되, 인하는 휘발유에 대해 기존 25%에서 2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에서 30%로 조정하였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감면 폭 축소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보편 지원'보

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할지, 중단할지에 대해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민서 학생기자 l2alstj@naver.com

찬성 **설지은 학생기자:** 나는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것에 찬성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 또한 연료비가 낮아지면 물류 운송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감소로 이어져 상품 가격이 인하하게 돼. 그로 인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므로 나라의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정부는 지난 6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인하율은 대폭 줄였어.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류세가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 여기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게 되면 최근 국제 유가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더해져 큰 부담이 될 거야.

반대 **최현민 학생기자:** 나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했어. 유류세를 인하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왔던 노력이 무색해져. 기름값이 부담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거야. 이러한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

반대 **최은진 학생기자:** 나는 유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불확실하다고 봐.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리터당 10원 인하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6원이 인하되어 연간 2천 리터 경유를 쓰는 자가용 화물차나 RV차량은 연평균 3만 3천 원 유류비가 감소한다고 해. 그러나 주유소별로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고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세율 인하만큼만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지는 불확실하고 점검하기도 어려워.

찬성 **맹지환 학생기자:** 나는 유류세 인하에 찬성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여러 중동 국가 내 불안정한 정세 등 유가 변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유가 변동이 민감한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경제사정 부담이 될 수 있어.

찬성 **설지은 학생기자:** 그 점은 동의해. 하지만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부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어.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13원으로 지난달 셋째 주(1,648.7원) 대비 64.3원 상승했어. 이는 직접적인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 한국은 소비인플레이션을 겪는 중이기에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상승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반대 **최현민 학생기자:** 그 부분은 그렇지만, 현재 석유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라, 국제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라. 미국은 비축유 방출까지도 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잦아든 상황이지. 따라서 유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우려도 작은 만큼,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로 인해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유가는 경제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 동향에 더불어 국제적인 유가 동향, 원유 소비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편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해야 할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 혹은 그 밖의 정책을 신설할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제299호 소리엽서 당첨자

제299호 소리엽서 퀴즈

Q. 편안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몸과 건강 모두 챙기는 건강 관리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극단적인 방법 없이 건강관리 자체가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자기관리법은?

299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헬시 플레저

제299호 소리엽서 당첨자

간호학과(생남) 이승창, 임상병리학과(생남) 이예원,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김태연,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신희진, 치위생학과 김채은, 치위생학과 윤채연,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김정희, 방사선학과 방은교, 의학과 장세희, 의학과 윤희봉

제300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소리엽서

제300호 소리엽서 퀴즈

Q. 자외선은 에너지의 일종이며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이 자외선(Ultra Violet, 이하UV)은 UV-A, UV-B, UV-C 세 종류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자외선을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 ㄱ. UV-A ㄴ. UV-C ㄷ. UV-B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온라인 소리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300호 소리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학과(학부)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제42회 을지문학상공모전

- 접수기간** 8월 12일(월) ~ 10월 13일(일)
- 참가대상** 을지대학교 재학생 (대전·성남·의정부캠퍼스)
- 응모주제** 자유주제
- 작품분량** 수필, 소설: 한글문서 A4 3장 이상 (신명조 10pt, 행간 160%)
시: 3편 이상
(을지대학교 홈페이지 학보사 페이지 하단에 올려진 글 양식을 다운받아사용해주세요
www.eulji.ac.kr > 대학생활 > 학생활동 > 학보사 > 하단 을지문학상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akbo@eulji.ac.kr)
파일명: 학번 이름
- 심사방법** 1차 - 접수작품 검수
2차 - 심사위원 심사

시상내역	수필	소설	시
최우수 작품		1편	
우수 작품		2편	
가작	2편	2편	2편

입상자 발표 11월 중 통보 및 학보에 공고

총상금 160만원

- 문의**
- ☎ 031-740-7126
 - ✉ hakbo@eulji.ac.kr
 - 🗣 을지대학교 학보사
 - 📷 @eulji_press



학보사
바로가기



재학생·동문 을지대학교의료원 할인 혜택 안내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을지대학교 재학생·동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을지대학교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재학생

구분		본인(%)	직계(%)	
접수비(진찰료)		100	-	
급여	외래	30	10	
	입원	행위별	30	10
		신포괄	15	5
		상급병실료	30	10
비급여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20	10	
	제증명	20	10	
	종합검진	30	20	
	PET-CT	30	20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동문

구분		본인(%)	직계(%)	
급여	외래	15	10	
	입원	행위별	15	10
		신포괄	10	5
비급여	상급병실료	15	10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10	10	
	제증명	10	10	
	종합검진	20	20	
	PET-CT	10	10	